

뷰티산업 주간 동향 보고

발행·작성: 뷰티산업연구소

조사 기간: 2026 년 10 월 12 일 ~ 10 월 18 일

대상 분야: 미용사·미용서비스산업, 미용교육·자격·직업훈련, 정책·법령·제도, 해외 미용 동향

① 주간 요약

이번 주 일본에서는 백발염색 고객이 살롱과 자택 염색을 함께 활용하는 비중이 약 20%까지 늘어난 소비행동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헤어·뷰티·바디케어 업종의 3 분기 기업도산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지만, 소규모 사업체의 재무 취약성은 여전히 주요 경영과제로 지적됐습니다.

교육·제도 측면에서는 독일의 직장인·경력전환자 대상 유연형 미용교육, 영국의 자영업 지위 개편 논의, 미국 살롱의 AI 활용 확대가 확인됐습니다. 프랑스 Hairworld 2026 에서는 국가대표 미용팀이 12 개 메달을 획득하며 기술경연과 체계적 청년인재 육성의 연계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② 핵심 뉴스

1. 일본 백발염색 고객, 살롱·자택 병행 이용이 약 20%로 확대

일본 Hot Pepper Beauty Academy 는 10 월 13 일 「백발·그레이헤어 의식조사 2026」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백발염색 경험자 가운데 살롱 염색 이용은 67.6%, 자택 염색은 44.7%였으며, 두 방식을 병행하는 고객은 2024 년 15.8%에서 2026 년 19.6%로 증가했습니다. 자택 염색의 주요 불편은 얼룩, 오염, 준비·정리의 번거로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살롱과 자택을 병행하는 고객이 늘수록 시술과 홈케어를 경쟁관계로 보기보다 하나의 관리주기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발관리 고객에게 다음 방문까지 사용할 제품과 응급관리 방법을 제안하면 서비스 만족도와 재방문 관리, 점판 매출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보도·발표일 2026 년 10 월 13 일

출처 Hot Pepper Beauty Academy

원문 링크 https://hba.beauty.hotpepper.jp/search/column/c_hair/83344/

2. 프랑스 미용·뷰티 업종, 3 분기 기업도산 4.9% 감소

프랑스 Profession Bien-Être 는 Altares 자료를 바탕으로 10 월 13 일 헤어, 뷰티케어, 바디케어 업종의 2026 년 3 분기 기업도산이 424 건으로 전년 동기 446 건보다 4.9%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어업종은 238 건으로 8.1% 감소한 반면, 뷰티케어는 147 건으로 2.1% 증가해 분야별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분석 업계 전체 수치가 개선돼도 분야별 경영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살롱과 뷰티숍은 매출 변화만 보기보다 고객 수, 방문주기, 인건비·임대료, 현금흐름을 함께 관리하고, 업종별 시장환경에 맞춘 비용통제와 서비스구성 조정이 필요합니다.

보도·발표일 2026 년 10 월 13 일

출처 Profession Bien-Être / Altares

원문 링크 <https://www.professionbienetre.fr/etudes-marches/defaillances-la-filiere-beaute-souffle-enfin-au-troisieme-trimestre/>

3. 독일, 직장인·경력전환자 위한 주간·야간·주말형 미용교육 운영

독일 BEAUTY FORUM 은 10 월 12 일 프랑크푸르트의 미용·메이크업 학교가 직장인과 경력전환자, 재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간·야간·주말 과정과 집중형 전문과정을 운영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예정 과정에는 총 36 개 자리가 마련됐으며, 전통적인 미용 기초와 현대적인

트리트먼트 방법을 결합한 실무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분석 학습시간을 다양화한 교육은 직장과 가정생활 때문에 장기 정규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성인학습자의 진입장벽을 낮춥니다. 국내 미용 직업훈련도 동일 과정을 주간·야간·주말·집중형 등으로 모듈화하면 재직자와 경력전환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보도·발표일 2026년 10월 12일

출처 BEAUTY FORUM Deutschland

원문 링크 <https://www.beauty-forum.com/news-kategorien/menschen-macher-maerkte/flexible-ausbildung>

4. 영국, 자영업 지위 개편 논의에 헤어·뷰티 업계 의견수렴

영국 National Hair & Beauty Federation 은 10월 14일 정부의 허위 자영업(bogus self-employment) 개선 협의에 헤어드레서가 명시적으로 포함됐다고 알리고 업계 의견을 모집했습니다. 논의 대상에는 진정한 자영업자의 계약정보 제공, 보호 강화와 함께 체어·룸 렌트, 프리랜서, 혼합형 사업모델에서 고용과 자영업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문제가 포함됩니다.

분석 헤어·뷰티업은 고용직, 프리랜서, 공간임대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공존하므로 제도 변화가 인건비, 채용, 교육투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근무형태별 계약관계와 역할, 교육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제도 변화가 현장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발표일 2026년 10월 14일

출처 National Hair & Beauty Federation

원문 링크 <https://www.nhbf.co.uk/news-and-blogs/blog/self-employment-reforms-have-your-say/>

5. 미국 살롱, AI 활용이 예약·마케팅·상담·KPI 관리로 확대

미국 SALON TODAY 는 10월 15일 살롱 오너들의 AI 활용 사례를 다루는 후속 세미나를 소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AI 리셉서니스트를 활용한 전화응대·예약, 이탈위험 고객 식별과 맞춤마케팅, 신규고객 모집, 상담지원, 평균객단가 향상, 맞춤 보고서와 KPI 코칭 등으로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분석 살롱의 AI 활용이 단순 예약자동화를 넘어 고객관리와 경영의사결정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미용실도 반복업무 절감과 고객경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되, 고객정보 보호, 직원 역할 재설계, AI 결과의 검증책임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보도·발표일 2026년 10월 15일

출처 SALON TODAY

원문 링크 <https://www.salontoday.com/articles/new-webinar-further-the-conversation-of-ai-usage-in-the-salon>

6. Hairworld 2026, 프랑스 대표팀 12개 메달...청년 기술인재 집중육성

프랑스 Profession Bien-Être 는 10월 16일 파리 Hairworld 2026에서 프랑스 미용 국가대표팀이 금 2개, 은 5개, 동 5개 등 총 12개 메달을 획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회는 50개국 이상이 참가했으며, 프랑스 대표팀은 국내 경연을 통해 선발된 젊은 미용인을 매년 15~25명 규모로 선발해 전문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국제 기술경연의 성과는 개인기술뿐 아니라 선수 선발, 장기훈련, 코칭과 경력개발이 연결된 인재육성 체계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용교육기관도 경연 준비를 일회성 행사로 운영하기보다 프로젝트 학습, 전문분야 심화, 포트폴리오와 진로개발 과정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보도·발표일 2026년 10월 16일

출처 Profession Bien-Être / UNEC

원문 링크 <https://www.professionbienetre.fr/coiffure/hairworld-2026-12-medailles-pour-la-coiffure-francaise/>

③ 분야별 동향

가. 미용사·미용서비스산업

일본에서는 살롱 염색과 자택 염색을 병행하는 고객이 늘면서 살롱 기술과 홈케어를 하나의 고객관리 흐름으로 연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용업 전반의 기업도산이 다소 감소했지만, 헤어와 피부미용 분야별 흐름이 달라 업종별 고객수·비용·현금흐름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 미용교육·자격·직업훈련 및 정책·제도

독일의 유연형 미용교육은 직장인과 경력전환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간·야간·주말 및 집중형 과정을 조합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헤어드레서가 포함된 자영업 지위 개편 논의가 시작됐고, 미국 살롱에서는 예약·마케팅·상담·KPI 관리까지 AI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Hairworld 사례는 국가대표 선발과 집중훈련을 통한 청년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④ 종합 시사점

1. 백발관리 고객이 살롱과 자택 관리를 병행하는 흐름이 확대되면 살롱은 기술만 제공하기보다 다음 방문까지의 홈케어 제품, 사용방법, 응급관리까지 연결하는 장기 고객관리 모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미용업 기업도산이 감소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체의 재무 취약성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매출뿐 아니라 방문주기, 인건비·임차료, 현금흐름과 업종별 손익구조를 함께 보는 경영관리가 필요합니다.
3. 직장인과 경력전환자를 위한 주간·야간·주말형 미용교육은 학습자층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국내 직업훈련과 평생교육도 모듈형·집중형 운영을 확대하면 재직자와 성인학습자의 참여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헤어·뷰티 업종에서 고용, 프리랜서, 공간임대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확대될수록 계약관계와 교육책임, 근로조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변화가 경영과 인력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살롱의 AI 활용은 예약자동화에서 고객이탈 예측, 맞춤 마케팅, 상담지원, KPI 관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입 효과와 함께 고객정보 보호, 직원 역할 변화, AI 결과 검증 기준을 운영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국제 기술경연은 단순한 수상행사가 아니라 국가와 업계가 젊은 기술인재를 선발하고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미용교육기관도 경연 준비를 프로젝트 수업, 포트폴리오, 전문분야 심화교육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⑤ 출처

- Hot Pepper Beauty Academy (2026 년 10 월 13 일), 일본 백발염색 고객, 살롱·자택 병행 이용 약 20%로 확대 | https://hba.beauty.hotpepper.jp/search/column/c_hair/83344/
- Profession Bien-Être / Altares (2026 년 10 월 13 일), 프랑스 미용·뷰티 업종 3 분기 기업도산 4.9% 감소 | <https://www.professionbienetre.fr/etudes-marches/defaillances-la-filiere-beaute-souffle-enfin-au-troisieme-trimestre/>
- BEAUTY FORUM Deutschland (2026 년 10 월 12 일), 독일 직장인·경력전환자 대상 유연형 미용교육 운영 | <https://www.beauty-forum.com/news-kategorien/menschen-macher-maerkte/flexible-ausbildung>
- National Hair & Beauty Federation (2026 년 10 월 14 일), 영국 자영업 지위 개편 논의에 헤어·뷰티 업계 의견수렴 | <https://www.nhbf.co.uk/news-and-blogs/blog/self-employment-reforms-have-your-say/>
- SALON TODAY (2026 년 10 월 15 일), 미국 살롱의 AI 활용, 예약·마케팅·상담·KPI 관리로 확대 | <https://www.salontoday.com/articles/new-webinar-further-the-conversation-of-ai-usage-in-the-salon>
- Profession Bien-Être / UNEC (2026 년 10 월 16 일), Hairworld 2026 프랑스 대표팀 12 개 메달 획득 | <https://www.professionbienetre.fr/coiffure/hairworld-2026-12-medailles-pour-la-coiffure-francaise/>

⑥ 배포 및 저작권 안내

본 보고서는 수신을 희망하는 미용 분야 종사자에게 비영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무료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공개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의 주요 사실을 간략히 재서술하고, 뷰티산업연구소의 독자적 분석을 덧붙여 작성하였습니다. 기사 원문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상세 내용은 제시된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기사 요약 및 출처 정보는 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